

“정제되지 않은 사운드’ 즐겨보시라”

밴드 '림즈' 첫 앨범 'Gentile' 발매
7월 6일 전대후문서 공연
나주 질풍노도 스튜디오서 음악활동



신당동에 위치한 공연장 '스컹크'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는 밴드 '림즈'의 모습. <림즈 제공>

“밴드는 베이스, 드러머, 보컬 등 세션 간의 완벽한 '조음'이 중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밴드명은 인간의 사지육신을 뜻하는 '림즈(limbs)'라고 지었습니다. 팔다리가 따로 놓이지 않듯 멤버들이 하나가 돼, 환상 호흡을 맞추고 싶은 마음을 투영했죠.”

밴드 '림즈' 소속 기타리스트·보컬 김세형은 자신의 팀을 이렇게 설명했다. 림즈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던 예술가들이 모여 2022년부터 합을 맞추기 시작한 인디 밴드다.

구성원 중 김세형(27·기타/보컬)과 김솔이(26·베이스스트) 두 사람은 광주 문화예술 대학인 학교 '레미' 출신이다. 광주 출신 드러머 김지승(32)은 동신대에서 실용음악과 베이스를 전공했다. 저마다 출신이나 전공은 다르지만 "지역에서 좋은 음악 한 번 해보자"라는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 하나를 기치로 팀을 결성했다고 한다.

'림즈'라는 팀명을 듣고 있으면 영국 록 밴드 '라디오헤드'의 앨범명 'The King of Limbs'가 떠오른다. 실제로 이들의 음악은 라디오헤드 특유의 얼터너티브 록 스타일을 오마주 한듯, '펑크'나 '뉴웨이브' 등 얼터너티브의 음악적 지류들이 느껴진다.

이들은 오는 24일 정오에 첫 앨범 'Gentile' 발매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앨범명 의미는 '이방인'.

림즈 김세형은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조금씩 마음의 길을 잃은 '이방인'일지 모른다"며 "각박한 세상에서 소외되는 이들의 마음에 '사랑'을 모티브로 길라잡이가 되고 싶다"고 했다.

이번 앨범에는 'LIFE LIFE LIFE', 'Huntsman', 'HALO'를 비롯해 대표곡 'Suffer'까지 총 네 곡이 수록됐다. 첫 앨범인 만큼 멤버들이 평소 견지하던 세상에 대한 비판의식을 투영했다. 특정 생각을 강요하는 '미디어', 혐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정치', 과도한 믿음은 파는 '종교' 등에 대한 단상들이 그것이다.

림즈는 7월 6일(오후 7시 30분)에는 전대후문 부드러운 직선에서 발매 공연도 진행할 예정이

다. 광주 로컬밴드인 투파이브, 루키 초록커튼 등이 게스트로 참가하며 입장료 1만5000원(청소년 1만원).

이번 신보 'Gentile'은 단 하나의 샘플링도 들어가지 않은 '순수 EP' 그 자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녹음부터 믹싱, 마스터링, 아트 워크(앨범 재킷, 프로필 사진)는 물론 뮤직비디오 촬영, 음원 발매 전 과정을 멤버들이 도맡았다. 수록곡들은 '정제되지 않은 사운드'라는 대중음악과 다른 기류가 흐른다. LOFI(의도적으로 음질을 낮춘)한 질감부터 트렌디한 선율까지 폭 넓은 음악 세계가 앨범에 집약돼 있다. 작·편곡에 림즈 전원이 참여했다는 점도 이목을 끈다.

"I want you to decline/ if it's not what you meant/그런 뜻이 아니라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취하지 마세요" 대표곡 'Suffer'는 미니멀한 가사와 이채로운 멜로디가 조화를 이룬다. 다소 교조적일 수 있는 가사이지만 부조리한 현실을 예술로 은유한다.

그동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없지 않았다. 림즈는 "지난해 '무주 쿨 썸머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공연 전날 비바람에 무대가 날아가 버려 행사가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다행히 소규모로 실내에서 공연을 진행

했지만, 공연계에 변수가 많다는 것을 실감했다"는 답을 내놓았다.

지난해 10월 앨범작업 중 기타 연주자 김세형이 교통사고를 당해 양 손목이 부러졌던 일도 각인돼 있다. 당시 앞두고 있던 공연은 모두 취소됐고, 앨범 작업마저 지연돼 이제야 첫 앨범을 발매하게 된 것.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는 음악인들이다. '배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녹음실 '질풍노도 스튜디오(나주)'에 매주 모여 음악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활발한 공연으로 광주 인디씬을 수놓아 왔다. 지난달 11일에는 헤비메탈 밴드 'CRYOS'의 국내 투어 게스트로 참여했으며, 구시청의 한 펍에서 기획공연 '프렌즈' 단독 공연을 펼쳤다.

지역 밴드 '몽키 피콕'의 정규앨범 발매 공연 등에도 참여했고 지난해 '부치데이 Vol.12' 투어에서도 일본 Bray.me 밴드 내한 공연 당시 협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림즈는 "이번 첫 앨범을 음악 활동의 노동들 삼아 앞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싶다"며 "지역 인디씬 등에서 활동하는 뮤지션에게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황영성 작 '무제'

남도화단 대표작가들의 화풍 속으로

26일까지 동명동 수하갤러리
노의용 등 23인 'Treasures' 전

자신만의 필법으로 작품세계를 구현해온 작가들에게선 독특한 아우라가 느껴진다. 예술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고행과 고투의 길이지만 흔들림없이 자신만의 길과 화풍을 추구해온 이들을 일컬어 작가, 예술가라 칭한다.

저마다 자신만의 화풍을 견지해온 남도 화단의 대표 작가들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동명동 수하갤러리(대표 장하경)에서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23인 유명작가 서양화 초대전 시리즈'에서는 지역의 내로라하는 서양화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주제인 'Treasures'는 이번 전시의 규모와 성격, 의미 등을 포괄한다. 23인 유명작가라는 표현에서 보듯 전시에는 호남 화단을 이끌어 온 원로작가, 꾸준히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견작가들이 초대됐다.

참여 작가의 면면도 화려하다. 국중호·김익모·김재형·김준호·김해성·노의용·박만수·송필용·신동인·오근탁·유수중·이사범·임병남·정상섭·정승규·정순이·조근호·조진호·진경우·진원장·최영훈·한희원·황영성이다

이들 작가들은 추구하는 세계와 필법, 예술을 보는 안목, 체형과 감성이 각기 다르다. 세대와 나이, 개성 등도 다르기에 이들의 작품에서 명징한 공통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만큼 스펙트럼이 넓고 층위가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23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있다. '유명 서양화가'라는 외경상 수사 외에 '독자성', '다양성'이 공통분모로 공유될 수 있을 것 같다.

송필용 작 '물의 서사'



조인호 광주미술문화연구소 대표는 "초대된 스물세 분의 작품으로 남도화단 전체를 일괄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원로 중진세대의 긴 시간 다져온 다채로운 화파세계의 면면을 일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작가들의 활동 추세와 연결지어 지역미술의 층위를 들여다보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장하경 대표는 "이번 전시에 초대된 23명 작가는 기존의 시각에서 탈피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예술의 고행에 이어나 분들의"이라며 "이들의 작품은 젊은 시절의 반역적 창조적 영감이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물이라 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화연·임의진 2인전 '외등불빛과 소금빵-천동마을 아카이빙'

24~30일 메이홀

박화연은 그동안 민중의 삶과 시대 비극을 자신만의 화법으로 구현해온 작가다. 오늘날 사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차분하면서 냉철한 시선으로 풀어냈다. 사북탄광 등 역사 기록물을 미디어를 통해 선보임으로써 잊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환기하곤 했다.

메이홀 공간인 임의진 작가는 시와 그림을 넘나들며 자유로운 활동을 펼쳐왔다. 창작 뿐 아니라 그간의 시각이 담긴 기획을 통해 시대의 화두인 생명, 민주, 통일 등 중요 담론에 기반한 전시와 글, 사유 등을 시민들과 공유해왔다.

박화연 작가와 임의진 작가의 2인전이 열려 눈길을 끈다.

24일부터 30일까지 메이홀에서 열리는 '외등불빛과 소금빵-천동마을 아카이빙'이 그것. 천동마을은 윤상원 열사의 기념관이 있는 곳이다.

주제가 말해듯 이번 두 작가 전시는 천동마을과 청년 윤상원 열사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 군부독재의 서슬 퍼런 시절, 가난한 마음들

이 하나하나 모여 불을 밝혔던 이야기는 잔잔한 여운을 준다. 늦은 밤 돌아오지 않은 가족을 외등불을 켜고 기다리던 어머니의 모습은 송고하다.

소금과 같은 삶을 산 청년들의 이야기는 또 어떤가. 그리도 성만한의 빵이 된 이들을 기리는 전시는 가치의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전시실에서는 임작가의 팝 아트에 가까운 목각화, 박 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을 볼 수 있다. 또한 첫 선을 보이는 '홍성담·임의진·박화연' 3인조 미디어 레플루션 '총알나비'는 양민학살을 다룬 짧은 짤(쇼트 애니메이션)로 눈길을 끈다.

임의진 작가는 "지난 2년간 윤상원 기념관 개관과 관련 김운성, 김서경, 홍성담, 전정호, 홍순관



임의진 작 '밥이 보약'

등 생명·평화·인권을 주제로 활동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구비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며 "박화연 작가는 기념관 영상물의 공동 연출자로 힘을 보탰다"고 전했다.

한편 24일 오후 6시에는 오프닝이 예정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콰르옥텟앙상블 '바로크 음악 연주회'

28일 금호아트홀

'콰르옥텟(Quarocet)'은 콰르텟(4인)과 옥텟(8인)을 합친 말로, '폭넓은 연주'를 하겠다는 뜻을 함의한다. 통상적인 실내악 편성이 트리오와 콰르텟인데 비하면, 8인조 편성의 '콰르옥텟'은 흔치 않을 수 없는 구성이다.

광주콰르옥텟앙상블이 '바로크 음악 연주회'를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금호아트홀에서 펼친다. 카치니, 비발디, 바흐와 헨델 등 바로크 시대 음악가들의 진수를 성악과 현악 연주로 만나는 자리다.

카치니의 수작 '아베마리아' 2중창으로 막을 연다. 숙명여대를 졸업하고 전문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서혜원, 한예종을 졸업하고 이탈리아 비첸타 국립음악원에서 수학한 이지연 소프라노가 들려줄 예정이다. 오페라 '디도와 에네아스' 중 '내가 대지에 묻힐 때'는 헨리 퍼셀의 곡이다. 목포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정상희(메조소프라노)가 나지윤(바이올린)의 연주에 맞춰 부른다.

조수미의 애창곡이기도 한 비발디 노래 '나는 열사받는 아내'도 레퍼토리에 있다. 소프라노 이지연과 바이올리니스트 임리경이 들려줄 예



'광주스트링콰르옥텟앙상블' <광주일보 자료>

정이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은 임리경·나지윤(바이올린), 안미영·신세민(첼로)이 연주하며 헨델 '복수하라, 디모데가 울부짖네'는 바리톤 방대진이 부른다. 빌리발트 글루크 작 '에우리디체 없이 무엇을 하리'는 이재식(테너)의 목소리에 실린다.

이밖에도 헨델 오라토리오 '조슈아' 중 '빛나는 세라핌'은 소프라노 황지영이, '파사칼리아'는 바이올리니스트 임리경이, '나를 울게 하소서'는 메조소프라노 김혜원이 들려준다. 세 곡 모두 안미영(첼리스트) 협연. 관람료 2만원, 학생 1만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